

서방에 대화 여지 남긴 푸틴

5번째 취임식서 내부 결속 강조...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옹호 미·영·독 등 불참 속 서방 겨냥 거친 발언없이 태도 변화 압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번째 취임식이 열린 7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방송의 생중계 화면은 조용히 푸틴 대통령의 크렘린궁 집무실을 비쳤다.

푸틴 대통령은 책상 앞에 서서 차분하게 서류를 살피더니 북도로 걸어 나왔다. 군인이 지키고 있는 복도와 계단을 익숙한 발걸음으로 지나친 그는 초호화 리무진 '아우루스 세나트'를 타고 크렘린궁 대공전으로 이동했다.

이례적으로 눈이 내리는 추운 5월 날씨였지만 푸틴 대통령은 대공전 입구에서 경비병에게 악수를 청하는 여유도 보였다.

과거 러시아 차르(황제)들이 즉위했던 대공전의 안드레옙스키 홀에 들어선 푸틴 대통령은 박수받으며 레드카펫 위를 걸었다.

취임 선서 후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먼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에게 대한 감사를 표했다. 취임식에 전사자들의 자녀들을 초대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새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지역에서 러시아가 임명한 지도자들도 취임식에 참석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직접 연설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관계가 급격히 틀어진 서방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방과 대화를 피하지 않는다"며 "선택은 그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방과) 안보와 전략적 안정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만과 자만, 배타성이 없어야 하고 강자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는 대등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발언과 비교하면 덜 위협적이었지만 결국 서방이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압박하는 내용이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전술핵무기 훈련을 명령하기도 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의 러시아 본토 공격 언급 등에 대한 경고였다.

서방은 이러한 푸틴 대통령의 압박에 보이콧으로 대응했다.

미국, 영국, 독일, 폴란드, 캐나다 등 서방 대사들은 취임식에 불참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는 프랑스, 그리스, 몰타,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헝가리에서만 대사를 취임식에 보냈다.

서방은 푸틴 대통령이 5선에 성공한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단결된 위대한 국민이며 모든 장애를 극복할 것"이라며 "함께 승리하자"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부 결속을 강조하며 연설을 마쳤다.

러시아 사회문제연구소(EISR)의 정치 전문가 다리아 키슬리치나는 타스 통신에 "이번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도전하는 서방에 대응해 통합과 단결을 강조했다"고 분석했다.

취임식 후 푸틴 대통령은 수태고지 대성당에서 열린 예배 참석했다.

러시아 정교회 수장 키릴 대주교는 "국가 지도자는 때때로 운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중세 노브

고로드의 왕자 알렉산드르 넵스키를 언급했다. 그는 넵스키 왕자에 대해 "그는 적을 살리지 않았지만, 성자로 유명해졌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영웅으로 여기는 넵스키 왕자는 13세기 유럽 침략자들에 대항해 러시아를 수호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기도 행사는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통치에 대한 종교적·역사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의식으로 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미-이스라엘 또 파열음 바이든 만류에도 라파 지상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류에도 라파 지상전 돌입 수순에 들어가며 잇단 파열음을 내고 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의 일방행보 수위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 (넘으면 대가를 치러야 할 금지선)을 넘지는 않았다는 내부 진단이 전해진다.

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 라파 지상전 반대 입장을 재차 전달한 지 몇시간 만에 라파 동부 외곽을 공습한 데 이어 가자지구 쪽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했다.

다만 이스라엘군이 아직 라파 시내에 직접 진입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미국 당국자들은 약시오스 인터뷰에서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이번 라파 국경 장악을 미국의 가자지구 전쟁 정책 기조의 방향을 바꿀 레드라인 침범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이스라엘 당국자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번 국경 장악 작전에 대해 미리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수많은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라파 시내에서의 대규모 지상 작전에 대한 반대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도 이번 라파 국경 작전은 하마스의 무기 밀수를 막고 휴전 협상에서 하마스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대규모 지상전에 돌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연합뉴스

동유럽 균열 노리는 시진핑

세르비아·헝가리 '핀셋 공략' 대표적 친중 국가 잇달아 방문 '아직 견제' 영향력 과시 포석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 내홍을 부추기기 위해 세르비아와 헝가리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모양새다.

세르비아와 헝가리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유럽내 비판 전선에서 온도차를 보여왔다는 점에서다.

특히 시 주석이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발생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중국 대사관 폭격 25주년에 이곳을 찾기로 한 점도 고도의 정치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시진핑이 유럽 순방 기간 동부의 우호적 나라들로 향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프랑스 국민방문을 마친 시 주석의 세르비아, 헝가리 방문 일정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

는 가운데 이들 두 국가의 권위주의 정상이 중국에 안식처를 제공한다"고 촌평했다.

NYT에 따르면 시 주석과 이들 두 국가의 밀착은 동유럽 국가 중 중국에 우호적이었던가 등을 들린 체코와의 관계 부침과도 무관치 않다.

2016년 시 주석이 국민 방문을 했을 당시만 해도 중국과 체코는 공고한 협력관계를 내세웠다.

그러나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 직후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중국의 화를 자극했다.

이후 중국은 체코에 대한 투자를 점차 줄이는 대신 헝가리와 세르비아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세르비아와 헝가리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는 각각 200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시 주석이 2016년과 달리 체코가 아닌 세르비아와 헝가리를 방문지로 택한 것도 이런 사정과 연관 지어 의미를 부여하는 시선이 많다.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시 주석 방문을 앞두고 중국 국영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만은 중국이다"라며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서부 오흐페레네 쿨 뒤 투르말레의 한 식당에서 친교를 나누고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이 찾은 곳은 마크롱 대통령의 외할머니가 생전 거주한 곳으로, 마크롱이 어릴 적 휴가를 보내려 종종 방문한 곳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한국 의원들 독도 방문에 日외무상 "주권 침해" 항의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8일 한국 국회 의원들이 최근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상륙 강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답변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병덕·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공육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 17명은 지난달 30일 독도를 찾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국회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하자 당일 즉시 성명을 발표해 항의했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 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